

사설

선수행에 더욱 매진하자

25일은 음력 시월 보름 동안가 결제일이다. 선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이루고자 하는 불자들, 특히 출가사문은 해마다 두번씩 여름·겨울을 맞아 안거에 들고 있는데 이번 동안가 결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결의에 차 있는 것 같다.

에서의 대형 법회를 열고, 참선 포교의 새 장을 열고 있다. 이는 조계종의 대 사회적 표어인 '깨달음의 사회화 운동'과도 부합되며, 동국대학교의 '참사람 만드는 열린 교육'이란 교육방침에도 부합하는 운동으로 살아있는 불교의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조계종 개혁운동이 발족된 이후 승가대학교 학원, 승가대학원의 설치법을 개·제정하여 규정 에 맞는 교학교육의 제도가 확립된 데 이어 선원교육이 체계화되어 실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는 종단의 미래가 교육발전에 있다는 점을 염려해온 터에 함으로 고무적인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아직 실현하려는 준비 단계에서 너무 기대를 크게 가졌 다가 후시나 하는 우려도 없지 않다. 우선 우려되는 것은 현실적으로 승가대학(전통 강원)의 강사조차 제대로 양성하고 있지 못한 현 상황에서 기초선원의 강사를 어느 정도까지 확보할 수 있을런지 자못 염려스럽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초급 1·2, 중급 1·2의 인가 학제를 세우고 교과과정에 의한 학습과 선(禪)실 습으로 체계있는 선원교육을 확립 하였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선원생활의 누에서 불매 상당부분 형질의 변화가 마찰없이 수용될 수 있을런지도 걱정스럽다.

물론 선종을 표방하는 전통 강원의 교과과정이 선수행의 기초과 목 위주로 짜여지기는 했지만 선원에서의 교과과정이 설정된 것은 참으로 획기적인 교육개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올곧은 수행자적 교육 없이는 올바른 포교와 교화 또한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 다.

또한 조계종 전 종정 서용승님이 백양사 고불총림에 본부를 둔 '참사람운동'을 펼치기 위한 도실 하는 바이다.

이것이 바로 선원생활의 누에서 불매 상당부분 형질의 변화가 마찰없이 수용될 수 있을런지도 걱정스럽다.

열린마당

불교복지 성공사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월주)은 지난 18일 교계 최초로 올 한해동안 부처님 지비의 뜻을 통해 희망과 용기를 준 불교 사회복지 프로그램 3편을 선정했다.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의 '정보리봉사단' 자비실천활동사례와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의 '재가노인의 자립지원 서비스 '은빛농장' 운영', 두승종합사회복지관의 '단체결연사업'이 그것.

이들 프로그램들은 각기 나름대로 지역적 복지욕구와 시설에서 파악한 지역사회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방안 등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됐다. 그러나 불교적 전문성과 참신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우수복지프로그램의 발굴, 홍보는 불교사회 복지 활성화와 정보교류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자 주)



◇ 지난 18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교계 최초로 우수 불교사회복지 프로그램 을 선정, 시상했다. (사진=고영배 기자)

'95년 5월 31일 교육개혁으로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의무화됐다. 이같은 사회적 요청에 따라 삼전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각)은 송과구내 중학교 25개교, 고등학교 28개교와 연계해 즉각 '참보리봉사단'을 출범시켰다.

청소노동의 공동체적 화합과 성숙된 인간성 회복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개발한다는 목적에 참보리봉사단을 출범시킨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일선적인 봉사활동에서 벗어나 봉사단의 조직성과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 접수→사정→봉사활동 사전교육→봉사활동 전개→사후관리→봉사활동 종결모임 등의 단계별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삼전복지관 참보리봉사단

송과구 53개 중·고교 연계프로 마련 조직·체계화 갖춘 다양한 봉사실천

사회복지사의 창의적 활동을 통한 소그룹활동, 통계작성 등 제반업무보조, 자원재활용(분리수거), 물리치료실봉사, 사무봉사, 관내 및 야외정소봉사,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한 공작봉사, 방과후 공부방봉사, 어린이집봉사, 특기활동, 식단준비 활동 등이다. 학교와의 연계프로그램으로는 독거노인을 위한 말발찬서비스를 실시했다. 또 소액새마을 봉사캠프와 수해복구를 위한 봉사단과견으로 외부봉사활동을 마련했다.

참보리봉사단 프로그램을 만든 사회복지사 이미영씨는 "프로그램 운영시 일반신청자와 학교추천에 의한 신청기간의 봉사활동 수행능력을 고려, 차별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자발적인 봉사활동 의욕 고취를 위한 사회복지사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속초복지관 '은빛농장' 운영

재가노인 일거리제공 무력감 해소 농작물 수익금 분배 경제적혜택도

'은빛농장'은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재할의지가 높은 재가노인을 대상으로 소일거리 제공에 건강을 유지토록 하는 노인복지프로그램이다. 아울러 일상생활의 무력감을 해소하고, 경제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 자립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지홍)은 복지관을 이용하는 1백 20명의 65세 이상 재가노인 중 참여를 희망하는 15명을 클라이언트로 했다. 프로그램은 주 3회정도 현장(신항사에서 무상대여한 속초시 노동동 일대 밭 5백여평)을 방문해 직접 밭일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자원봉사자들을 통해 노인들을 보조하도록 배려했다.

클라이언트는 1년 단위로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직접 밭갈기, 고랑만들기, 파종하기, 김매기, 농약살포를 시기에 맞춰 실시해 농작물을 수확한다. 노인들이 스스로 경작한 땅에서 거두어들인 쌀, 메밀, 알타리무우, 옥수수 등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수식당에서 자체 수용하거나 김장김치용으로 시중판매한다. 또한 7월중에 수확한 고구마를 속초시 13개동 노인회관에 전달해 자비를 실천하는 등의 간접포교에도 일조했다. 또한 수확물의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은 노인들에게 전액 배분해 경제적 혜택까지 경험하는 효과를 거두었다.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의 이경미과장은 "노인공동농장을 운영함에 있어 참여노인들의 휴식공간(원무마) 확보와 흥미유발을 위한 오락프로그램 등의 소프트웨어개발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확물을 화폐단위로 전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관료가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의 '은빛농장'은 속초시의 모범이 돼 관할시정 사회과에서의 취로사업장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두승종합사회관은 성인 실업자 28.8%가 거주(복지관 95년 조사결과)하고 있는 부산 사하구 대저2동에 위치한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관은 비관적이고 자포자기 한 소년소녀가장 및 편부모 가정의 청소년 11명을 대상으로 선정해 '단체결연모임 사업'을 벌였다.

'단체결연모임'은 성인남녀 자원봉사자들과의 관계형성 속에서 평소 접하기 힘들었던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자기성장을 도모하고, 바람직한 가족구성원과의 역할상을 학습하게 했다. 이 사업은 지난 8월부터 97년 7월까지 1년간 실시하고 있으며, 월 1회 평균 3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된 3개월간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8월에 벌인 프로그램은 '대화의 장'으로, 자원봉사자, 참가대상아동들간의 상견례와 단체결연모임 이름찾기 등의 순서로 진행했다. 또 9월에는 인근지역의 볼링센터에서 볼링 경기를 통해 회원들간의 관계형성 및 단합된 모습을 다졌다. 10월에는 부산 어린이대공원으로의 가을야유회를 개최했다. 야유회는 사회복지사가 트인 공간에서 회원들의 생기가 있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따른 각자의 재능과 능력개발을 돕는 계기가 됐다. 또 각 모임마다 생일잔치를 실시, 구성원간의 정을 나누는 기회로 삼았다.

두승복지관 단체결연사업

봉사자·불우청소년 정나누기 결연 사회적응력 고취·탈선예방등 주력

서로 진행했다. 또 9월에는 인근지역의 볼링센터에서 볼링 경기를 통해 회원들간의 관계형성 및 단합된 모습을 다졌다. 10월에는 부산 어린이대공원으로의 가을야유회를 개최했다. 야유회는 사회복지사가 트인 공간에서 회원들의 생기가 있는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그에따른 각자의 재능과 능력개발을 돕는 계기가 됐다. 또 각 모임마다 생일잔치를 실시, 구성원간의 정을 나누는 기회로 삼았다.

두승종합사회복지관은 향후 비디오감상, 송년파티, 낚시, 독서토론회, 견학, 자원봉사활동, 어린이날 기념 체육대회, 사생대회, 5분 스피치 등을 개최해 회원들의 부정적인 생활태도를 개선하고, 의식전환을 꾀할 방침이다. 또 이를 통해 호혜적인 가족관계를 유도하고, 자기주장능력의 양성은 물론 사회성을 향상시킨다는 계획이다.

현대만평



둘부처가 됩시다

목어

"벼룩의 간을 내먹지..."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한국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을 파란에 빠뜨린 한국의 취업사기행각이 뒤늦게 보도됐다.

"벼룩의 간을..."

'우리민족 서로 돕기 운동'의 발표에 의하면 연변 조선족 2백 4만명 중 직간접 피해를 본 사람은 40만명에 이른다. 피해액은 우리 돈으로 3백30억원, 화폐가치 기준으로는 1조원이 넘는다. 9월23일부터 11월8일까지 46일간 접수된 이 신고건수가 '직접 피해' 건수의 절반 정도라니 더욱 어이없다. "저는 연변에 살아요. 지난해 1월 중국여행중 병을 얻은 한국인 이정석씨(33)를 다섯 병원을 전전하며 치료해 주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생각에 치료비까지 (약 3백만원) 대주었지요. 지난해 4월 은혜를 갚겠다고 다시 찾아왔어요. 이씨는 한국방문을 주선 돈으로 3백30억원, 화폐가치 기준으로는 1조원이 넘는다. 9월23일부터 11월8일까지 46일간 접수된

한국의 한 브로커는 화면에 버섯이 얼굴을 내밀고 자기변명을 늘어냈다. "남의 눈에서 눈물나게 하면 내눈에 핏물난다"는 준엄한 인과가 기다리고 있는데도. 조선족 그들은 잘사는 고국 남한을 동경했다. 그런데 그 회화에 부준 가슴에 피멍을 들었으니... 그들은 분노하고 있다. '보복'을 말하고 보상을 요구하며 서명에 들어갔다. 정부는 눈멀고 귀먹었는가. 일이 이 지경에 이르도록 왜 몰랐단 말인가. 늦었지만 조선족 동포들이 조국을 등지는 일이 없도록 진정한 민족애를 보여주자.

이렇듯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의 '은빛농장'은 속초시의 모범이 돼 관할시정 사회과에서의 취로사업장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속초종합사회복지관의 '은빛농장'은 속초시의 모범이 돼 관할시정 사회과에서의 취로사업장으로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

새싹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미리 미리 그 시기가 언박해서야 비호소 기우는 노력은 사식은 마땅히 할 일을 하지 않은거나 다름이 없다. 미처부터 기우인 노력이야 할 일을 다한 것이다. (명선대량운경)

합찬

종계종 무진법장사 주지 석법장 TEL. (02) 932-2333

민족사판 <불교경전총서>는 불교경전 우리시대의 새로운 대장경입니다. 01 화엄경 김지건 역 값12,000원 02 유마경 박용길 역 값6,500원 03 묘법연화경 이재호 역 값13,000원 04 금강경 정호영 역 값4,500원 05 능엄경 김두재 역 값9,500원 06 원각경·승만경 진해주·김효성 역 값8,500원 07 정토삼부경 法頂 역 값6,500원 08 범망경·지장경 一指 역 값5,500원 09 과거현재인과경 해원 역 값8,500원 10 백유경 천라 역 값6,500원 11 부모은중경(관음경·우란분경) 一指 역 값5,500원 12 대반열반경 강기희 역 값5,500원 13·14 아함경 ①② 돈연 역 값1권 7,500원 2권 7,000원 15 법구경 석지현 역 값6,500원 16 숫타니파타 석지현 역 값7,000원 17·18 밀린다왕문경 ①② 동복 역 (97년3월간행) 19·20 본생경 ①② 이미형 역 값1권 8,500원 2권 9,500원 21 미륵경전 이종·무관 역 값6,000원 22 해심밀경 묘주 역(근간) 값8,000원 \* 범보시는 부처님 말씀이 담긴 경전으로 합니다! 신국판 270쪽/값 5,500원 한국의 전설적 선승 경허선사 이야기!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경허선사 鏡虛禪師 이흥우 지음 탁월한 선지, 막행 막식 그리고 질풍 같은 선승의 삶을 산 경허선사! 64세, 그의 만년은 뜻밖에도 유행지인 갑산 용이방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한다. 훗날 스승의 입적 소식을 듣는 제자 만공과 혜월이 그의 무덤을 파고 다시 다비를 했다. 어느 여름날 경허스님은 제자 만공과 함께 탁발을 나갔다. 하루종일 걷다보니 다리가 아픈 만공이 쉬어가자고 졸랐다. 그 말을 들은 경허스님은 퍼를 하나 생각했다. 그리고는 갑자기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네의 불에다 "쪽" 하고 입을 맞추었다. 순간 동네 청년들이 "저 중놈 잡아라" 고함치며 달려왔다. 스승과 제자는 걸음이 나 살려라 하며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갔다. 단숨에 커다란 고개를 넘어 능선에 다다르자 스승 경허가 만공에게 물었다. "아직도 다리가 아프냐." 신국판 288쪽/값 6,800원 경허선사의 생애를 온전한 필자로 사실 그대로 서술하고 있는 필자 이흥우 씨는 오랫동안 조선일보 문화부 기자와 논설위원을 지냈다.